

뚜루게네프의 受容과 影響

—1920년대 리얼리즘문학의 성립과 관련하여—

趙 鎮 基

目 次

I. 序 論

2. 韓國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II. 本論

수용과 影響

1. 日本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III. 結 論

受容과 影響

I. 序 論

韓國 근대문학의 성립은 서구문학의 영향에 크게 힘입고 있지만, 그 가운데 러시아문학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學界에서는 러시아문학과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일부 관심을 보인 사람도 특정한 작가의 원천을 밝히는 작업의 하나로 작품의 유사성을 지적하거나¹⁾ 아니면 러시아 작가 및 작품의 移入史를 정리한 것²⁾이 고작이다.

러시아문학이 세계문학에 동참하고 세계문학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19세기 리얼리즘문학은 家父長的 農奴制度가 붕괴되고 그 속에서 점차 자본주의가 성숙되던 시기였다는 점³⁾에서 프랑스 리얼리즘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리얼리즘은 국민문학으로

1) 金松峴, 初期小説의 源泉探索, 《現代文學》, 통권 117호, 1964.

金鐸熙, 崔曙海에 끼친 고리끼와 알치이·마세부의 영향, 국어국문학, 88호 국어국문학회, 1982.

2) 金澤東, 韓國文學의 比較學의 研究, 『潮閣』.

李崇源, 韓國文學의 막심·고르키 受容, 국어국문학, 통권 88호 국어국문학회 1982.

3) 朴炯奎, 러시아 문학의 世界, 고려대출판부, 1985, p. 11.

서 강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당대 러시아의 사회상을 리얼하게 묘사했다. 이러한 박애주의에 근거를 둔 러시아의 리얼리즘은 日本의 자연주의에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되었다.⁴⁾ 이러한 사정은 20年代 프랑스문학에 관한 論著가 78건인데 비하여 러시아는 112건⁵⁾이나 된다는 것은 당시 러시아문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년대 한국의 리얼리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리얼리즘과의 관련 양상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러시아 리얼리즘이 한국 리얼리즘문학의 성립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뚜루게네프의 수용과 영향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筆者는 전신자로서 日本(뚜루게네프의 日本 수용양상)을 중시하였음을 지적해 둔다.

II. 本 論

1. 日本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수용과 영향

일본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수용은 3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제 1기는 명치 19년에서 22년(1886~1889)까지 약 4년간으로 이 시기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뚜루게네프가 관심의 대상이 된 시기로 이는 문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比較文化論的 관심이 주조를 이루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제 2기는 明治 29년에서 大正 10년(1896~1921)으로 뚜루게네프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의 작품에 대한 영향으로 島崎藤村, 有島武郎의 장편소설이 중요한 성과로 지적될 수 있는 시기인데, 특히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극적 소설과 자연주의 파를 낳는 계기를 만들어 준 시기이다. 昭和 10년(1935) 이후는 제 3기로

4) 明治以後 러시아 문학이 일본에 크게 영향을 주게된 이유를 新谷敏三郎은 ① 日本과 러시아는 바다를 사이에 둔 인접나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직접利害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에 日本에 있어서 러시아語 학습이 일찍부터 요청되었다는 점 ② 유럽 문명을 수입하는 러시아의 후진성과 日本도 유럽문명을 수입한다는 점에서 동일시하면서 러시아 문학과 혁명에 일본 지식인이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③ 러시아 기독교의 靜寂主義가 日本의 知的 社會에 작용한 점을 들어 러시아 문학이 日本文學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新谷敏三郎, 日本における ロシア文學, 「歐米作家と 日本近代文學」3, 教育出版センター, pp. 15~19. 참조.

5) 金秉喆,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 乙酉文化社, 참조.

볼 수 있다.⁶⁾ 그러므로 한국의 리얼리즘 성립과 관련하여 뚜루게네프를 문제 삼을 때는 제2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뚜루게네프 이입의 제2기는 단순히 작가의 소개단계를 뛰어 넘어 작품에 대한 번역과 이들 작품에 대한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볼테면, 일본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작품이 최초로 번역된 것은 明治 18년(1885)의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작품은 당시 일본의 니힐리스트의 모범⁷⁾으로 소개되었다. 뚜루게네프와 함께 그의 작품을 번역한 二葉亭四迷의 이름이 일본 문학사에 기억될 만한 것은 명치 21년(1888) 〈國民之友〉 제 25호와 27호에 발표된 「あひびき」에 의해서였다.⁸⁾ 「あひびき」의 번역은 단순히 뚜루게네프의 작품이 번역되었다는 문제를 뛰어넘어 몇가지 면에서 日本文學史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으니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첫째, 언문일지체를 완성했다는 점이며, 둘째, 일본 문학의 자연관을 혁신시켰다는 점인데 그것은 러시아의 자연주의 소개로 일본의 자연관, 계절관에 北方的 요소를 추가시켜 줌으로써 國木田獨步의 「武藏野」를 창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셋째, 소설 자체로서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데 尾崎紅葉의 「金色夜叉」가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⁹⁾ 한편 이 작품의 번역은 당시 15세의 上田敏을 위시하여 國木田獨步, 森鷗外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

森鷗外는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당시 독일에서는 뚜루게네프의 인기가 있었는데 그는 독일역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후 그는 「舞姫」를 쓰게 되는데 이 작품은 뚜루게네프의 「春波 Fruhlingswogen」의冒頭를 일부 번역하여 삽입함과 동시에 뚜루게네프의 「春の水」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을 작가는 밝히고 있다.¹⁰⁾ 그는 뚜루게네프의 산문시를 최초로 번역하기도 했다.

二葉亭四迷와 함께 뚜루게네프의 작품을 러시아어로 읽고 자기의 창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矢崎鎭四郎이다. 그는 명치 22년(1889) 1월에 「初

6) 松田 穰, 比較文學辭典, 東京堂出版, 1978, p. 192.

7) 安田保雄, ツルゲ-ネフ, 「歐米作家と 日本近代文學」31, 教育出版センター, 1976, p. 48.

8) 二葉亭四迷가 번역한 「あひびき」는 뚜루게네프의 「獵人日記」의 一篇으로 원전은 美國版인 Franklin Dierree Hbbot의 Annals of sportsman 가운데 The Rendezvous 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것이었다.

9) 安田保雄, 比較文學論考(統編), 學友社, 1974, pp. 29~30.

———, ツルゲ-ネフ, 앞의 책, pp. 51~54.

10) 安田保雄, 比較文學論考(續編), p. 34.

戀」을 발표하는데, 이는 작가 스스로 뚜루게네프의 「初戀」을 읽고 감화를 받아 쓰여진 것¹¹⁾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해 8월에 〈國民之友〉에 발표한 「流轉」도 뚜루게네프의 「루딘」의 영향하에서 쓰여진 것이다. 「あひびき」를 번역했던 二葉亭四迷는 명치 30년(1897)에는 「루딘」을 「うき草」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 작품은 國木田獨歩, 田山花袋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國木田獨歩는 二葉亭四迷의 번역 「あひびき」의 영향으로 「武藏野」라는 작품을 쓴 바 있다고 했지만 그 보다 더욱 獨歩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片戀」¹²⁾과 「うき草」라 하겠다. 國木田獨歩는 「편연」에서 힌트를 얻어 「正直者」, 「女難」, 「春」, 「鳥」를 쓰게 된다. 「정직자」는 福田清人に 의하면 명치 3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주인공 〈나〉는 표면적으로는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고아로 자라났기 때문에 냉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청년의 오뇌와 성욕에 대하여 솔직하게 묘사한 작품¹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의 「편연」(八), (九)와 함께 「うき草」의 영향임을 安田保雄은 밝혀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女難」은 「편연」의 영향과 함께 「うき草」의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다. 「うき草」에는 주인공 〈루딘〉이 레샤네프와 헤어진 후 세 번의 실패담을 이야기하고 있음과 같이 「어난」도 주인공 〈나〉가 여자로부터 실패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백치 소년 六藏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春の鳥」는 영국의 워즈워즈의 시 「There Was a Boy」와 「The Idiot Boy」와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편연」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安田保雄은 밝혀 주고 있다.¹⁴⁾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獨歩가 뚜루게네프의 영향으로 인생의 패배자를 즐겨 등장시키게 되었으며, 1인칭소설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¹⁵⁾는 점이다. 사실 일본에 있어서 1인칭소설의 개조라 불리워지는 獨歩는 「運命論者」, 「女難」, 「正直者」 등과 같은 1인칭소설의 걸작을 남겼는데 이후 이들 작품은 일본소설에 하나

11) 安田保雄, ツルゲーネフ, 앞의 책, p. 60. 참조.

12) 二葉亭四迷 編譯의 「片戀」은 뚜루게네프의 「あひびき」와 「奇遇」를 번역하여 명치 29년(1896)에 간행한 번역작물집임.

13) 安田保雄, 比較文學論考, 學友社, p. 50.

14) 安田保雄은 「片戀」과 「獨歩」라는 글에서 獨歩의 作品 「正直者」, 「女難」, 「春の鳥」의 원천으로 「片戀」과 「うき草」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위의 책, pp. 45~67 참조.

15) 安田保雄, ツルゲーネフ, 앞의 책 p. 65.

의 대표적 양식으로 자리잡게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田山花袋 역시 「あひびき」를 읽고 감동한 이후 二葉亭四迷의 이름이 있는 작품은 무엇이든 읽는 한편 《國民之友》에 실려 있는 德富蘆花의 외국문학의 소개 특히, 제 74 호의 「魯國の小説と小説家」등으로부터 두루게네프의 「獵人日記」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명치 34년(1901)에는 Constance Garnett가 英譯한 「A Sports Man's Sketches I, II」를 읽었다. 田山花袋는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명치 35년(1902)에 간행된 「重右衛門の最後」를 쓰게 되었다. 「重右衛門の最後」는 「안드레이코로소브」와 「엽인일기」의 「체르토프 하노브의 최후」에서 차용한 것¹⁶⁾이다. 또한 田山花袋의 「田舎教師」에서 보이는 마지막 묘지의 장면은 두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島崎藤村의 「春」은 두루게네프의 「처녀지 Virgin Soil」의 영향을 받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명치 40년대에 이르러 두루게네프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여 와세다대학에서는 일본 자연주의 문학이론을 확립시켜 준 島村抱月이 두루게네프에 대한 강좌를 시작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이 영문과 졸업논문으로 까지 당당히 쓰여졌다.¹⁷⁾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이 시기에는 두루게네프의 작품 번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때에 번역된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吉江孤雁 譯「ツルゲ-ネフ」短篇集(明・41) 戸川秋骨譯「獵人日記」(明・42)

吉江孤雁譯「短篇三種ツルゲ-ネフ集」(明・43) 仲田勝之助譯「セニクア」(明・43)

相馬御風譯「その前夜」, 「貴族の家」(明・43)

특히 相馬御風은 와세다대학에서 島村抱月로부터 두루게네프를 배운 사람으로 자연주의 진영의 대표적 논객으로 활동하는 일방 러시아문학의 번역에도 관심을 기울여 두루게네프의 「On the Eve」를 「その前夜」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최초로 번역했다. 그런데 이「その前夜」는 相馬御風の 번역을 도왔던 楠山正雄에 의해 각색되어 대정 4년(1915)에 예술좌의 제 15 회 공연으로 소개되기도 했다.¹⁹⁾

16) 위의 글, p. 74.

17) 위의 글, p. 75.

18) 松田 穰, 比較文學辭典, p. 191 및 安田保雄의 ツルゲ-ネフ, 그리고 日本近代文學辭典(卷四)을 참조하여 作成한 것임.

19) 安田保雄, 앞의 글, p. 77.

한편, 명치 말에서 대정기에 활약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英譯으로 된 뚜루게네프 소설집을 애독했다. 앞에서 지적한 獨步, 花袋, 藤村 등 소위 자연주의 작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소위 百樺派의 작가, 이를테면 有島武郎, 志賀直哉 같은 작가도 뚜루게네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작가라 할 수 있다.

有島武郎이 처음 읽은 뚜루게네프의 작품은 「아버지와 아들」로, 그가 워싱턴에서 유학을 하던 1906년으로 알려져 있다.²⁰⁾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작품 「カインの末裔」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물 설정에 있어서 이상한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주인공 仁右衛門이 경마에서 앞발이 부러진 말을 도살하는 장면이나 북해도를 배경으로 한 대자연의 묘사 따위는 뚜루게네프의 영향임을 부정할 수 없다.²¹⁾ 志賀直哉 역시 뚜루게네프로부터 문학적 부채를 어느 정도 지고 있다. 이를테면, 그의 일기 도처에 뚜루게네프의 「루딘」을 비롯한 작품을 읽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²²⁾ 특히 그의 문학의 중요한 테마인 부자간의 투쟁은 뚜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의 영향이라는 점에는 별 다른 이론이 없다. 대정기에 이르러서도 뚜루게네프의 작품 번역은 활기를 띠어 大貫品川譯의 「煙」(대·3), 松本苦味譯의 「春の水」(대·4), 相馬御風譯의 「處女地」(대·3) 谷崎精二譯의 「父と子」 등 대표적 장편이 거의 완역 되었으며, 뚜루게네프의 전집만도 대정기에 新潮社版 10권, 冬夏社版 4권이 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뚜루게네프의 일본 수용은 초기에는 단순히 러시아 니힐리스트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나 明治 중기에 이르러 그의 문학은 일본 리얼리즘 문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뚜루게네프가 일본 문학에 미친 영향을 吉田精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文學界」이후 청춘 교양의 글이 되고 소설기법의 모범이 되었다. 자연주의, 신사조파에도 읽혀 지식계급의 역사탐구, 성격파산자적 지식인의 창조, 이상의

20) Monday, Jan. 8. 1906. Snow at evening cold.

朝, 圖書館にて Turgenev の “Fathers and Children” を讀み終る。強を impression を受けた。安田保雄 獵人日記と 近代日本文學(二), 「比較文學論考」(續編), 學友社, p. 74.

21) 安田保雄, 위의 글, p. 82 참조.

22) 위의 글, pp. 85~86 참조.

여성상, 극적 플롯을 지닌 소설, 산문시, 자연묘사, 전원시 등 각 장르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²³⁾

이처럼 뚜루게네프문학의 일본수용은 한국 리얼리즘의 성립과도 일정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일차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2. 한국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受容과 그 影響

한국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이름이 최초로 이입된 것은 1909년 대한홍학보 제8호에 夢夢의 「小說 요조오한 四壘半」에서 이다.²⁴⁾ 이후 10년대에는 총 6회에 걸쳐 작가명이 이입되고 있는데 7편의 산문시가 번역, 소개되고 소설 「그 전날 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뚜루게네프의 소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사람은 岸曙 金億이다. 그는 단순히 작품의 번역, 소개에 머물지 않고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해설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뚜루게네프에 대한 최초의 소개로 볼 수 있다.

만흔 로서아시인 가운데 예술의 묘취(妙趣)와 인상의 월등함은 이반 트루게네프 Ivan Turgenev(1819~83)에 비할 사람이 없다.

이에 소개코자 하는 청춘의 심각 사이에서 싸아난인 아름다운 철학 오심(奧深)은 사상의 결정(結晶)이다. 19세기의 진물노 그의 일흔 늙흔 작품도 여러가지 있다. 기회만 잇스면 평전(評傳) 갖흔 것도 쓰랴고 한다. 역자²⁵⁾

한편 안서는 《창조》에도 이미 泰西文藝新報에 번역, 발표한 작품과 함

23) 松田 穰, 比較文學 辭典, p. 192.

24) 夢夢, 小說 요조오한(四壘半), 大韓興學報, 第8號, 金秉喆, 韓國近代西洋移入史研究, 乙酉文化社, p. 26 참조.

25) 1910年代에 번역 소개된 뚜루게네프의 散文詩는 다음과 같다.

분어구	崔南善	青春 제1호. 1914.
乞食	夢夢	學之光 제4호. 1925.
명일? 명일?	岸曙生	泰西文藝新報 제4호. 1918.
무엇을 내가		
싱각하겠나		
시		泰西文藝新報 제5호 1918.
비렁방이		泰西文藝新報 제5호 1918.
늬은이		泰西文藝新報 제7호 1918.
N. N		泰西文藝新報 제7호 1918.

26) 岸曙生, 로서아의 유명흔 시인과 삼구세과의 대표적 작품, 泰西文藝新報, 제1호, 1918년 10월 26일.

께 3편의 시를 번역, 발표하면서 번역의 대본으로 에스페란토로 번역된 번역본과 영역본 그리고 일역본을 대조하여 번역했음을 밝혀주고 있다.²⁷⁾ 이처럼 1910년대에 있어서 두루게네프의 이입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시인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의 소설이나 사상에 대한 이입은 20년대에 들어와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20년대에 있어서 두루게네프의 이입 양상을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두루게네프에 대한 소설과 그에 관한 글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논한 것은 玄哲에 의해서였다 그는 두루게네프의 소설 「그 전날 밤」을 희곡으로 옮기면서 붙인 해설에서 작가 해설과 함께 번역의 대본 및 작품의 성격을 밝혀 주고 있다.

脚本 隔夜는 露西亞의 三大 小説家の 一人 이완 툴게네프(1813년~1818년)의 가장 代表的인 六大 小説 中の 一을 大正 四年度에 藝術座의 興行脚本으로 當時 演劇學校 先生 楠山正雄氏가 脚色한 것이다. 이것을 각색한 原作小説은 1859년의 出版한 英譯 -ON THE EVE요 日本서는 小説로 亦是 演劇學校 先生인 相馬御風氏의 日文翻譯의 「其의 前夜」가 이것이다. 楠山先生도 亦是 이 脚本을 「脚本 其의 前夜」라 한 것을 余는 그 意味를 取하여 脚本 「隔夜」라는 名稱을 주었다.²⁸⁾

여기에서 玄哲은 두루게네프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소설가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작품은 일본의 작가 楠山正雄이 각색한 것을 그대로 번역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두루게네프의 소설 「그 전날 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기에 재론은 생략하거니와 이 당시 외국문학의 수용 양상을 이 글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玄哲은 같은 글에서 이 작품을 번역 소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시 러시아 문학을 수용하던 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世界 代表的 戯曲이 많은 中에 特別히 이 脚本을 選擇하여 着手한 것은 가장

27) 散文詩集을 逐號하여 譯出하려고 하는데 順序는 譯者의 便宜대로 號라고 하며 原文을 옮기는 譯者는 잊지할 수 업시 世界語譯本(에스페란토譯……筆者註)과 英文譯本과 또는 日本譯本을 對照하여 重譯한다. — 譯者 프르세네옌作(億生譯), 散文詩(Ⅰ), 創造, 제8호, 1921. 1, p. 109.

28) 玄哲, 脚本 隔夜, 開闢, 第1號, p. 151.

여러가지가 우리에게 共鳴되는 점이 있고 또는 반흔 西洋 中에도 가장 地理的 關係가 갖가운 露西亞의 今日的 狀態가 마음에 서나지 안이하는 새삼이다. 이 脚本에 나오는 모든 人物이 오늘날 露西亞를 說明하는 것가튼 마음이 킨다. 女主人公 에레나가 1850年代의 露西亞의 活動的 新革命의 타입의 先驅者임과 그 父親의 頑固한 思想, 青年의 彫刻家, 哲學家, 愛國者 모든 性格이 우리로 하여금 一看百讀의 價値가 있을 줄 생각한다. 더구나 彫刻家 슈빈의 性格과 가튼 것은 平生에 불계념의 藝術에 그가티 好意를 가지지 안이한 톨스토이도 讚揚의 辭辭를 아끼지 안이하였다.²⁹⁾

여기에서 무엇 보다도 먼저 주목할 사실은, 러시아 문학을 받아들이는 이유의 하나로 러시아와 우리의 지리적 거리감을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럽문학과 이질감이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품적 성격이 당시 한국의 사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주인공 〈인사뭉〉의 혁명기적 성격과 여주인공 〈에레나〉의 사랑을 통하여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삶의 양식을 일깨워준 사실을 玄哲은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 1920년대에 있어서 한국문학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南歐文學에 비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한 北歐文學이 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것은 玄哲이 지적한 지리적 거리와 함께 러시아 문학이 지니고 있는 국민문학으로서의 특성, 이를테면 러시아 문학의 일관된 사상으로서는 全人的 人間상 추구³⁰⁾가 한국문학 형성에 하나의 전범으로 인식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金明植은 「露西亞의 산 文學」이라는 글에서 러시아 문학의 특징을 단순히 서정적인 예술이 아니라 삶의 표현으로 민중의 감정과 인생의 실생활을 주로 한 것으로 이러한 문학이야말로 진정한 생의 문학이라고 규정하고³¹⁾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작가로 뚜루게네프, 토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그리고 고리끼를 들고 있다. 그 가운데서 뚜루게네프의 작가적 특성에 대해서는 귀족들이 農奴에 대한 학대와 혹사에 격분하여 농노에 대한 동정과 귀족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獵人日記」 「貴族의 집」 「그 前날 밤」 「아비와 자식」에 공

29) 위의 글, pp. 151 ~ 152.

30) 新谷敬三郎, 日本における ロシア文學, 「歐米作家と日本近代文學」, 3, 教育出版センター, p. 25.

31) 金明植, 露西亞의 산 文學, 新生活, 1922年 4月, pp. 5 ~ 6 참조.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³²⁾ 물론 이러한 지적은 투루게네프의 작가적 세계를 너무나 단순화한 것이지만 그런대로 20년대 한국현실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문학이 지배계급의 오락이나, 그들의 옹호자가 아니라 가난한 民衆, 특히 식민지하에서 고통받는 민족의 삶을 옹호하는 민족문학의 길을 마련해 주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崔曙海 역시 러시아 문학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투루게네프에 대하여 작가적 성격과 함께 그의 대표작, 「煙」, 「父와 子」, 「處女地」, 「貴族의 家」, 「獵人日記」가 있다고 언급하고 「煙」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曙海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투루게네프는 가장 명확하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自然主義에 社會的 傾向을 甚히 가진 것은 투르게네프였다. 투르게네프(1818~1883)는 가장 明確하게 時代精神과 時代意思를 反映하였다. 그의 著로 일흔 餘흔 것은 「煙」, 「父와 子」, 「處女地」, 「貴族의 家」, 「獵人日記」 등이 있다. 다 銳敏한 觀察로 社會大氣의 動搖를 情彩幽微하게 그려내었다.³³⁾

崔曙海는 여기에서 투루게네프만을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투루게네프의 작가적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투루게네프의 작품 해설에서 당시 러시아의 귀족관리와 有識階級의 횡포에 대하여 비판하고 法律과 權威에 굴복하지 않는 소위 虛無主義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曙海 자신의 문학적 지향점을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李相和도 「無產作家와 無產作品」이라는 글에서 서구 여러 나라의 무산 작가와 작품을 말하는 자리에서 투루게네프를 거론하고 있으며³⁴⁾ 李永石은 「露西亞文豪의 自然觀(新生, 1929. 5)에서 투루게네프와 고르키를 택하여 두 사람의 자연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³⁵⁾

32) 위의 글, pp. 7~8 참조.

33) 豐年, 近代露西亞文學概觀, 朝鮮文壇, 동권 제3호, 1924, 12, p. 61.

34) 尙火(抄), 無產作家와 無產作品(二), 개벽, 동권 66號, 1926, 2, p. 98.

35) 金秉喆,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 研究, p. 682 再引用.

뚜루게네프

고르키

(1) 靜的

(1) 動的 現實的

(2) 自然을 위안의 대상이나 美의
대상으로 봄

(2) 現實生活의 유일한 근원어요,
慈母의 품과 같은 안식처로 봄.

(3) 대자연의 우물, 단조, 신비,
비에 등 고독한 정서를
묘사한 점

(3) 左同

(4) 思索의인 무엇이 있음

(4) 약동하려는 무엇이 있음

(5) 哲學者의 우물

(5) 關土의 우물

(6) 觀照의, 孤立的

(6) 主觀的 적극성

위의 표에서 보이는 양자의 차이는 지나치게 양자를 구별하기 위한 글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뚜루게네프와 고르키를 선택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지니는 의미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뚜루게네프의 문학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한국문학에 있어서 자연이 고작 정서적이고 장식적이며, 나아가 소극적인 기능에 한정되고 있을 때 러시아 문학의 자연관에 대한 관심의 표명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있어서 뚜루게네프의 이해는 작가론적 관심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작품론적인 관심이 우세했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뚜루게네프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 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작가로 거론되면서도 독립된 논고는 한 편도 없는데 비하여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상당수에 이름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뚜루게네프의 작품 가운데 최초로 번역, 소개된 작품은 「密會」로서 1919년 2월에 泰西文藝新報 15-16호에 金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작품은 「創造」9호에(1921, 5, 30)에 재록되어 있으며, 다시 廉想涉에 의하여 「東明」31호(1923, 4, 1)에 번역되어 있다. 이처럼 한 작품에 대하여 많은 번역과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뚜루게네프 및 그의 작품 특히, 「密會」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소설의 문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짙은 것³⁶⁾으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뚜루게네프의 「그 전날 밤」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 작품은

36) 金澤東, 韓國文學의 比較文學의 研究, 一潮閣, p. 175 참조.

앞에서 살펴본 玄哲이 희곡 「격아」라는 제목으로 번역 소개한 바 있고, 1929년 李泰俊이 《學生》지에 축역한 바 있다. 玄哲이 이 작품을 번역하면서 쓴 해설은 이미 검토한 바 있지만 李泰俊 역시 이 작품을 번역하면서 해제를 쓰고 있는데, 이는 짧은 글이지만 투루게네프의 작가적 특성과 함께 작품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작품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전날 밤」은 「무정」 「아버지와 아들」 「檀氣」 「處女地」 등과 함께 투루게네프의 傑作 中에 하나입니다. 露西亞가 나혼 世界的 文豪는 文章의 明快한 것과 描寫의 巧妙한 것이 各各 各人의 心에 入습니다. 그는 光明과 美를 사랑하고 調和를 사랑하는 艷麗優雅한 情緒 中에도 늘 寂寂 悲哀가 있겠습니다. 이 「그 전날 밤」도 그렇습니다. 그의 豊富한 詩想과 熱情으로 青春의 純潔한 사랑과 青春의 豁達한 義勇을 그린 作品입니다. 누구나 가슴찬 呼吸으로 읽어 내려가다가 自己도 모르게 눈물이 맺치고 책을 덮히 못코는 소리치 울고 심도록 한겨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作品 中에서 아름다운 友情과 眞實한 사랑만을 차져 내려가며 적을 것을 말습해 둡니다.³⁷⁾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글은 간결하면서도 투루게네프의 작가적 성격을 분명히 해주고 있으며, 작품 「그 전날 밤」의 세계와 함께 번역의 의도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李泰俊은 「그 전날 밤」을 단순히 애정소설의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귀족관료의 황로와 농노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라는 문제에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懷月 朴英熙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작품론은 이 시대에 발표된 작품론 가운데 가장 무게 있는 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투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1921년 《共濟》에 줄거리가 소개되었으며, 1924년에는 懷月 역시《共濟》에 이 작품의 부분역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懷月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작품론은 당대 독자에게 작품 이해와 함께 러시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懷月은 러시아의 문제는 농노제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방하려는 선각자 가운데 한 사람이 투루게네프이며, 그의 「아버지와 아들」은 古 러시아와 新러시아의 鬭爭을 자극하는 작품이며, 新時代가 舊時代에 挑戰하는 眞理의 宣言³⁸⁾이라고 전제하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인공 빠사로프

37) 金秉喆, 앞의 책, p. 683 재인용.

38) 懷月, 準備時代에 있는 빠사로프의 否定的 精神, 開闢, 통권 64호, 1925, 12, p. 9.

의 부정적 정신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정적 정신이란 소위 당시 러시아를 풍미하던 니힐리즘 Nihilism으로, 이를 “모든 것을 批評의 觀察로 보는 사람이며 어떠한 權力에도 屈服하지 안이하고 어떠한 理論에도 信念을 가지지 않는 사람”³⁹⁾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상이 대두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西歷 1830年代로 부터는 農奴制度和 壓迫이 지극하던 러시아 思想界에는 新舊思想의 交代期였든 故로 社會는 騷然하고 渾沌하였든 狀態에 잇섰다. 그런 故로 舊思想과 挑戰하는 新思想의 所有者들은 자연히 舊思想이 가지고 온 信仰과 眞理와 더욱이 權力을 지극히 미워하고 否認하지 않을 수 업섰다. 否認한다는 것이 어떠한 새로운 光明을 위하여 그것이 眞理일 것이었든 사담이다.⁴⁰⁾

여기에서 부정적 정신은 물론 러시아의 농노제도라는 특수한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도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0년대 한국현실과 대응된다고 하겠다.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주의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억압과 속박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며, 부자연한 제도에서 해방되어 개체로 하여금 새로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을 단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개인주의란 엄격히 말하여 사회화된 개인을 의미하며 실용주의적 사고와 밀착되어 있다. 그 결과 빠사로프는 예술이나 연애까지도 부정을 하였다. 그가 믿는 것은 唯物論과 과학적 學理뿐이었다. 그는 “씩테의 시보다는 개고리 해부가 필요하고 석한 조각보다는 고기 한 조각이 필요하다”⁴¹⁾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빠사로프의 부정이 근거하는 것이며, 이 부정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기 때문에 파괴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朴英熙가 쓴 글을 살펴 보았거니와 여기에서 20년대 프로문학가의 면모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물론 투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루고 있는 세계가 농노해방 전후의 낡은 귀족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대립을 통하여 일

39) 위의 글, p. 10.

40) 위의 글, p. 10.

41) 위의 글, p. 14.

체의 낯은 도덕, 습관, 종교를 부정하는 급진적 인텔리겐차의 모습을 그린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정정신을 계급주의 문학의 한 전형으로 이해한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 뚜루게네프나 토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범으로 오해한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작품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강한 휴머니즘이나 국민문학으로 지향하는 러시아 리얼리즘문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20년대에 발표된 뚜루게네프와 그의 작품에 대해 논의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 보았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뚜루게네프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그다지 많은 것은 못되지만 러시아 문학을 거론하는 자리에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당대 한국문단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⁴²⁾ 이러한 높은 관심은 그의 작품번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시 34편, 단편소설 8편, 장편소설 5편⁴³⁾이 번역되었는데 이는 톨스토이, 채홉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뚜루게네프가 한국 근대 리얼리즘 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러시아문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廉想涉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염상섭 문학의 원천에 대해서는 이미 몇 사람의 論考⁴⁴⁾가 있어 왔다. 특히, 「표본실의 청개고리」는 뚜루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원천으로 하여 쓰여진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개구리의 해부장면이 일치하며, 주인공이 장발객이며, 허무주의자라는 점⁴⁵⁾도 일치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동시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루단」과 일정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루단」은 철학적 사색을 좋아하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지만 의지력이 부족하여 현실생활의 무능력자이다. 그러므로 그의 두뇌는 명석하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상적 인물로서, 인생에 참패하는 소위 러시아 인텔리

42) 20年代에 투루게네프를 부수적으로 소개한 글은 34회에 이르고 있으니 토스토예프스키 28회, 고르키 27회, 톨스토이 63회로 러시아 작가 중 두번째로 많이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秉喆, 앞의 책, p. 695 참조.

43) 金秉喆, 앞의 책, pp. 705~710 참조.

44) 金松峴, 「三代」에 끼친 外國文學의 影響, 現代文學 통권 97호 1963.

_____, 初期小説의 源泉探索, 現代文學 통권 117호, 1964.

金澤東, 比較文學論, 새문사.

柳仁順, 「標本室의 靑개고리」에 대한 比較文學의 研究, 梨花語文論集, 제 5 집, 1982, pp. 139~160.

45) 金松峴, 初期小説의 源泉探索, pp. 92~93.

센차의 전형으로서의 잉여인간이라 할 때, 「표본실의 청개구리」에 등장하는 金昌億이야말로 일제시대의 청년의 고뇌를 안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광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점은 1920년대 한국적 잉여인간으로, 「루던」의 영향임은 분명하다.

그런가 하면 金東仁의 「마음이 열은 자여」 역시 두루게네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당시 田榮澤의 지적처럼 성격파산자의 생활을 그린 것⁴⁶⁾으로 주인공 K는 신경질적이며, 공상적, 감상적인 인물로서 현실로 부터 밀려 나가게 된다. 물론 이 작품은 두루게네프가 추구한 세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Y라는 여인의 배신과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을 다루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말할 때 현실의 패배자라는 점과 허무의식에 빠져 들어가는 점에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작가와 작품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은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두루게네프 수용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년대 한국 리얼리즘 소설이 1인칭 소설 양식을 확립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20년대 日帝治下 현실에서 작중 주인공이 허무주의적이고 패배자적인 면이 강조된 것이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평등을 구현하려는 태도 등은 어떤 의미에서 두루게네프의 수용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Ⅲ. 結 論

지금까지 1920년대 두루게네프의 수용과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러시아문학을 수용하는 동기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리적 근접성을 중시하고, 러시아문학이 지니고 있는 작품적 성격이 다시 한국의 사정과 일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玄哲이 두루게네프의 「그 전날 밤」을 번역하는 동기를 말하는 자

46) 「마음이 열은 자여」에 나타난 K의 성격의 根本的 特徵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一時의 感情의 發作에도, 또는 在傍者の 一動一靜에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모양으로 東浮西流하는 性格의 所有者이다. 따라서 그의 生活은 언제던지 感傷的 空想과 後悔의 生活이다. 兪笑, 性格破産, 創造, 제 8 호, 1921, p.

리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뚜루게네프의 작가적 성격을 귀족들이 농노에 대한 학대에 격분하여, 농노에 대한 동정과 귀족에 대한 비판에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물론 뚜루게네프의 작가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20년대 한국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 점은 崔曙海가 뚜루게네프의 문학은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평가한 것이나, 金明植이 귀족과 농노간의 문제로 파악한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한편 20年代에는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작품번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뚜루게네프의 작품에서 중시한 것은 허무주의 색채, 지배계급의 횡포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부정정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20년대 라일리즘 소설이 일제치하의 현실적 모순을 비판하는 경향이 우세한 점이나, 염상섭의 일련의 작품에서 보이는 허무주의적 색채나, 잉여인간의 모습, 金東仁 소설에서 보이는 성격파산자의 모습은 뚜루게네프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20년대 후반 프로문학계에서는 뚜루게네프의 작품을, 사회를 否定하는 문학으로 파악하고 계급문학의 하나로 이해한 것은 日本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작품의 전체상을 왜곡하여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